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이 갈수록 가관이다.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눈 감고 귀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걸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갈 것이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다.

우리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걸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